

**가족 및 관리의 통합적 접근에 기반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Premarital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Integrated Approach Family Relation and Family Resource Management  
: for Happy Marital Life

재단법인 서울여성 교육사업부  
부 장 고 선 주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강 사 이 현 아  
교 수 이 기 영  
서울신학대학교  
겸임교수 최 진 아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연구원 유 우 영

Seoul Women's Foundation, Program  
*Director* : Koh, Seonju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Lee, Hyunah  
*Professor* : Lee, Ki-Young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Additional professor* : Choi, Jina  
Korean Family Life Improvement Center  
*Researcher* : Yu, Wooyo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
| II.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V. 요약 및 논의          |
| III.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 참고문헌                |

Corresponding Author: Lee, Hyunah,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San 56-1, Shilim-dong,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2-880-8928 Fax: 82-2-871-2506 E-mail : leehyun@snu.ac.kr

## &lt;Abstract&g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to evaluate the premarital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integrated approach of family relation and resource management to attempt to reduce marital distress. Using a combination of previous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and survey result of educational need, it is consisted of 4 sessions (session 1: Meaning and expectation of the marriage, session 2: Couple Communication, session 3: Love and Sexuality, session 4: Family Life Planning)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the efficiency of this premarital preparation program was proved. In the 11 couples evaluation data, those who had taken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were more likely to satisfied program and more likely to invite the others to join this program. When asked what content areas were most helpful, the two top ranking went to the Couple Communication (41.9% rated as helpful), and Family Life Planning (35.5% rated as helpful).

**주제어(Key Words):**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premarital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부부의사소통(couple communication), 생활설계(family life planning),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 I 서론

## 1. 가족 및 관리의 통합적 접근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가족에서 주요한 노동력의 공급원인 가족내의 교육은 실제 생활과 연관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정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혼인 이후의 결혼생활준비교육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회구조 변화는 결혼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자유연애과정에 기초한 배우자선택이 주를 이루게 되고, 제도적인 교육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성취지향적인 교육만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생활과 교육제도 양 측면에서 모두 실제 결혼생활교육의 공백을 낳게 되었다.

최근 들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사회의 이혼률의 증가, 특히 젊은 부부들에게 있어 이혼률의 증가<sup>1)</sup>는 기대했던 결혼과 현실에서의 결혼의 차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의 당연한 선택으로 보이기도 한다. 낭만적 사랑의 강조로 인한 배우자 선택에서의 이상과 실제 결혼생활의 영위에서 나타나는 가족내의 역할과 새로운 지위로의 적응, 다양한 인척관계의 조정과 실생활의 책임은 젊은

부부에게 준비되지 못한 충격으로 다가옴으로써 결국 배우자와 결혼자체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이혼이라는 선택을 내리게끔 하는 것이다. 동료적이고 이성 친구 같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갈 수 있는 애정에 기반한 결혼은 애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혹은 그 애정이 의심받을 경우 오히려 가장 취약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혼율의 증가에 대한 우려는 최근 들어 다시금 결혼준비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결혼준비교육은 결혼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최초의 가장 큰 변화인 동시에 가족 자체의 존재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가족생활교육분야에서 가장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분야(김광률, 1998; 김득성, 박미경, 1997; 김혜석, 1990; 박희성, 김혜선, 2001; 오윤자, 2001; 정민자, 1996, 최혜경, 노치영, 박의순, 1994; 홍달아기, 신현실, 2001)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국내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들의 장기적인 이혼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연구가 부족한 편이나 우리보다 이른 시기부터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보급된 미국에서는 부정적인 결과

1) 2001년을 기준으로, 전체 이혼건수 135,014중에서 결혼지속년수 4년 이하가 차지하는 결혼초기이혼비율은 30.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홈페이지).

를 예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이혼과 결혼해체를 예방하는 프로그램 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들을 정리한 Stanley(2001)는 결혼준비교육 특히 PREP(Prevention and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가 통제집단에 비하여 프로그램 실시후 5년까지 이혼율이나 해체를 등에서 낮은 점을 밝히는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명하였다. 즉,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임을 입증한 것이다.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어떤 영역을 다룰 것인가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구성의 문제는 결국 전반적인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인가 혹은 특정 영역 중심의 특화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프로그램 보급단계에서는 일반적인 결혼생활 영역을 다루는 준비프로그램이 먼저 실시되지만 프로그램의 확산단계에 이르면 필요한 영역중심의 특화된 후속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국내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결혼생활 전반에 걸친 영역을 다루는 일반적인 준비교육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 구성내용은 개발자의 전공 특성이 반영되어 가족관계적 측면 위주의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가정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예비부부들에게 있어 자신과 상대를 어떻게 조화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관계적 측면 뿐 아니라,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하게 될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와 경제적 공동체로써 가계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가정자원관리적 측면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국내의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은 실제 가족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적 토대인 자원 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실제적인 영역에 초점을 두고 일반적인 결혼생활을 다루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인적 영역과 물적 영역을 모두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막연한 기대나 관념적인 사랑을 다루기보다는 실제적인 기술습득에 주안점을 두고 가

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의사소통과 생활설계분야를 가족생활교육 안으로 통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2.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지향점

본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을 소개하기에 앞서 우선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우선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어떤 부부를 교육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지향점을 보다 명확히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평등한 가족을 지향하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에서 지향하는 가족은 정보사회에서의 평등가족이다. 21세기는 정보사회로서 정보사회는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개인의 성장과 만족을 더욱 중요시함에 따라 개인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율성을 추구하게 되며, 결혼은 부부상호간의 존중을 그 기본 요건으로 한다. 부부간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융통성있게 역할을 분담하며, 책임과 권위 등을 공평하게 분배하며,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대화하며, 부부 각자의 일의 영역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누리는 형태이다(조정문, 1997).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맞벌이부부를 전제로 평등가족을 지향한다. 평등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의 기본적 지향은 프로그램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 이는 부부이기 이전에 자신 자신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라는 의미로서 어느 누구도 상대에 대한 우선적인 희생이나 배려를 요구하지 않는다.
- 부부간의 융통성있는 역할분담을 실시한다.
  - 융통성 있는 역할분담은 단순한 분담보다는 각자의 적성과 능력이 맞는 역할분담을 뜻한다.
  - 가사노동과 육아 등에 부부가 함께 논의하여 각자 부부에게 적합하게 조정하도록 한다.

- 부부간의 각자 일의 영역을 인정한다.
  - 부부간의 각자 일을 가진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맞벌이부부를 가정하는 것으로 모든 프로그램의 개발과 진행은 이를 기본전제로 한다. 부부 각자의 일을 인정하고 배려해주도록 한다.
- 평등한 관계는 구체적인 기술습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단순히 관념적인 평등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서로를 동등하게 배려하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한 실제적인 생활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동등하게 배려받음으로써 각자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 II.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1.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구성과정

구체적인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을 설계하였다.

- 첫째, 기존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분석
- 둘째, 미혼자와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요구도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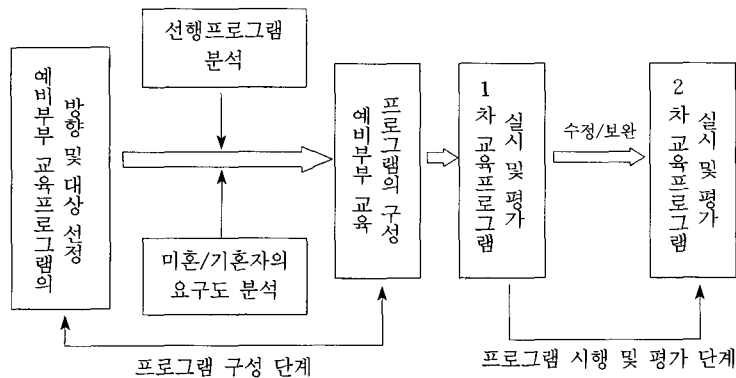
사 과정이다.

실제 기술습득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과제 하에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비교 검토하고 요구도 조사를 거쳐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구성되었다.

구성된 프로그램은 실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우선 기존의 프로그램과 요구도 분석을 거쳐 1차적으로 개발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2002년 8월 31일과 2002년 9월 7일 2차에 걸쳐 총 4세션으로 실시되었다. 취업한 예비부부들의 시간 압박을 고려하여 한번에 2세션의 교육을 하루에 진행, 2주만에 교육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평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수정을 거쳐 수정된 프로그램을 2002년 10월 5일과 10월 12일 2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러한 전체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그림 1>과 같다.

### 2. 국내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고찰

국내의 공식적인 결혼준비 교육은 70년대부터 이루어졌다.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신부대학, 숙녀대학 등의 강좌가 대학이나 지역사회단체에서 개설되었고 미혼여성이나 예비신부들을 대상으로 요리, 예절, 살림살이와 부덕 등의 일반



<그림 1> 예비부부교육 프로그램 구성절차

〈표 1〉 국내외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명칭	연구자	내용
결혼준비성인교육 프로그램	김혜석	결혼관정립, 친밀감, 의사소통, 차이이해, 건강한 자아상, 근원가족, 실제적 기대, 자녀출산 및 양육, 갈등해결기술, 의사결정 방법, 역할기대, 재정, 성, 양가부모님과과의 좋은 관계 맺기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김득성, 박미경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서로에 대한 이해, 역할기대, 효과적인 의사소통, 친밀감, 갈등해결, 성, 생활양식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교육학적 관점을 기초로 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정민자, 오윤자	소속하기와 독립하기, 결혼생활과 가치관, 성지식, 의사소통훈련, 성역할 결혼관과 건강가족,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나 기대, 사랑과 성, 의사소통기술, 가사노동, 가계관리, 의사소통방법
건강한가족생활교육을 위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유영주 외 2인	결혼관 건강가족, 비현실적 기대, 사랑과 친밀감, 성, 역할, 재정관리, 의사소통
결혼초기부부를 위한 부부교육프로그램	최혜경 외 2인	사랑의 실제 파악 확인, 지각과 문제해결 방법의 차이, 자아파악 상호작용 패턴 진단, 문제해결과 평가
교과과정으로서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홍달아기, 신현실	사랑의 의미, 배우자선택, 성격과 성장배경 이해, 자아존중감 증진, 효율적인 의사소통, 갈등해결, 결혼적응, 역할분담, 건강한 성, 재정관리, 결혼준비

교양교육과 가정관리, 결혼관을 다루었다.

80년대 들어 서울 YMCA의 결혼강좌,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교육원의 혼인준비교실, 두란노서원의 결혼예비학교, 새세대 육영회의 예비부모교육, 서강대 철학과의 결혼준비특강 등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대학과 지역사회 뿐 만 아니라 종교기관에서도 단기적인 결혼준비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70년대와는 달리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준비교육을 실시하였고, 대단위강좌 뿐 만 아니라 상담형식의 교육도 나타났다.

90년대 들어 교회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결혼예비학교(두란노서원), 아름다운 가정설계(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 예비부부교실(동안교회), 결혼준비교실(영락교회), 사랑의 동산(가정선교교육원), M.E (Marriage Encounter), 부부성장(Marriage Enrichment) 프로그램, YMCA의 결혼강좌 등이 있다. 그런데 종교단체의 결혼준비교육은 대부분 교회의 사목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종교적 색채가 강해서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거나 외국의 프로그램에 바탕을 두어 우리나라 부부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대학에서는 90년대 들어 결혼준비에 관한 기초연구와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준비교육이 이루어졌다. 대한가정학회 회원중심으로 개발된 부부교육프로그램은 전통적인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부터 부부의 관계적인 측면을 강화한 프로그램, 부모역할과의 조화를 강조한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거나 연구의 목적으로 개발된 몇몇 프로그램들은 〈표 1〉과 같다<sup>2)</sup>. 이들 결혼준비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은 주로 의사소통, 성생활, 결혼에 대한 헌신, 갈등해결, 자기이해, 근원가족, 재정관리기술, 부부역할,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등이다.

위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체로 ①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 대화에 관한 내용, ② 사랑과 성에 관련한 내용, ③ 결혼관이나 결혼의 목적이나 의미, 비현실적 기대 등 결혼 전반에 관한 내용 등이 가장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는 사랑에 초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 재정관리나 시간관리 등이 포함되는 프로그램 등 각 프로그램마다

2) 종교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제외한 것이다.

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가족관계학회의 후원 하에 개발된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개념들에 따르면, 가족생활교육의 내용은 7가지의 주된 주제영역으로 인간발달과 성, 대인관계, 가족상호작용, 가족자원관리, 부모됨의 교육, 윤리, 가족과 사회로서 제시하고 있다(가족관계학회편, 1998). 또한 Hariman(1986, 가족관계학회편, 1998 재인용)에 의하면 대인관계기술, 의사결정 기술, 아동양육기술, 가족자원관리기술, 부모됨, 성교육, 변화하는 가족생활 양식 및 가족구조 등이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검토해보았을 때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실제적인 기술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개념으로 들고 있는 가족자원관리기술의 경우 국내의 프로그램에서 재정관리영역으로 다뤄진 바 있지만 가정자원관리를 전공한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에 의해 다뤄짐으로써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가족학 전공자와 가정자원관리학 전공자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기존에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였을 뿐 아니라 보다 총체적인 시각에서 가족생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발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 및 관리의 통합적 접근에 기반한 본 예비부부 프로그램은 ① 전반적인 결혼의 의미를 다루는 분야, ②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분야, ③ 사랑과 성에 관한 분야, ④ 재정관리 및 시간관리를 다루는 생활설계분야로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접근해 보았다.

### 3.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도 조사

보다 현실적인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이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조사는 미혼과 기혼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미혼인 경우 결혼의향이 있는 미혼남녀로, 기혼인 경우는 결혼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신혼기 맞벌이부부로 한정하였다.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조사는 대체로 실제 교육대상이 되는 미혼남녀

를 대상으로 하나, 본 연구에서는 결혼한 지 3년이 넘지 않는 신혼기 부부에게도 동일한 요구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결혼으로 새롭게 형성된 신혼기의 부부는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준비와 교육이 결혼전에 필요한지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의 크기는 미혼 400명, 기혼 200쌍을 대상으로 배포하였으나, 그중 미혼 299명, 기혼 176쌍(352명), 총 651명이 응답하여, 이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요구도가 4점 이상(5점척도 기준)으로 높게 나타나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을 알 수 있었다(표 2). 특히 '나와 상대에 대한 이해'와 '자아존중감'이 미혼과 기혼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이며 그 다음으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갈등원인 및 갈등해결'이 높은 요구도를 보여 부부간 의사소통방법과 갈등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미혼의 경우에는 '성생활의 조화와 갈등', '장기적 재무설계', '사랑의 의미와 표현' 등이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기혼의 경우에는 그 외 '임신과 피임', '장기적 재무설계', '남성과 여성의 이해', '사랑의 의미와 표현' '시댁과의 관계' 순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미혼이 비해 좀 더 현실적인 내용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실시와 진행에 관련하여 실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미혼의 남녀가 희망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우선 결혼준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8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미혼의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실시시기에 대해서는 결혼 3개월 전후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결혼 6개월 전후가 32%로 많았다. 프로그램실시횟수는 2-3회가 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5회가 33.7%로 많았다. 한편 프로그램 실시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이 35%로 가장 많고, 그 다음 1시간30분 32%, 2시간 28%순으로 많아, 프로그램 1회당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 실시요일에 대해서는 금요일 저녁과

〈표 2〉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요구도 분석결과

	미혼 (N=299)	기혼 (N=352)
자아존중감에 관한 내용	461	460
나와 상대의 장점과 단점의 이해	464	475
자율성의 중요성과 습득	413	420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수정	395	410
결혼의 권리와 의미	418	414
남성과 여성의 가족내 역할	411	428
평등한 부부가 되는 방법	432	433
남성과 여성의 이해	429	439
임신과 피임	428	442
성생활의 조화와 갈등	439	431
사랑의 의미와 표현	436	438
시댁(본가)와의 관계	431	438
처가(친정)과의 관계	433	435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	427	434
맞벌이가족의 역할분담과 대처방안	431	439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452	451
의사소통의 장애요인	424	418
갈등원인 및 갈등해결	455	444
부부간 생활시간패턴의 조정	390	396
부부간 합리적 가사노동분담	411	415
효과적인 시간관리전략	388	397
부부간 소비지출패턴의 조정	405	405
단기적 재무설계	407	416
장기적 재무설계	439	441
합리적 구매의사결정전략	385	390
예물과 예단에 관한 내용	346	352
결혼식 준비를 위한 정보	396	404
결혼준비를 위한 재정계획	413	411

토요일 오후가 각각 32%, 30%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장소로는 지역복지관이나 지방자치단체시설이 47%로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로그램의 참여단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커플'과 '가능하면 커플'에의 응답을 합해보면 94%로 혼자보다는 커플단위에 대한 선호가 절대적으로

〈표 3〉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실시방법에 대한 요구도 분석 결과

내 용	구 분	빈도(%)
결혼준비 교육 필요성	필요하다	251( 84.2)
	필요없다	47( 15.8)
	소계	298(100)
프로그램 실시시기	결혼1개월 전후	32( 10.9)
	결혼3개월전후	123( 42.0)
	결혼6개월전후	95( 32.4)
	결혼1년전후	29( 9.9)
	기타	14( 4.8)
	소계	293(100.0)
프로그램 실시 회수	1회	15( 5.1)
	2-3회	110( 37.4)
	4-5회	99( 33.7)
	6-7회	34( 11.6)
	8회이상	36( 12.2)
	소계	294(100.0)
프로그램 실시시간	1시간	104( 35.5)
	1시간 30분	94( 32.1)
	2시간	83( 28.3)
	3시간	7( 2.4)
	기타	5( 1.7)
	소계	293(100.0)
프로그램 실시요인	평일저녁	61( 20.7)
	금요일저녁	96( 32.7)
	토요일오후	89( 30.3)
	토요일저녁	35( 11.9)
	기타	13( 4.4)
	소계	294(100.0)
프로그램 실시 장소	지역복지관이나 자치단체시설	143( 48.8)
	학교관련시설	61( 20.8)
	개별가정	17( 5.8)
	직장관련시설	55( 18.8)
	기타	17( 5.8)
	소계	293(100.0)
프로그램 참여단위	반드시 커플이 참여	130( 44.2)
	커플이 함께 참여하면 좋다	147( 50.0)
	혼자라도 상관없다	17( 5.8)
	소계	294(100.0)
교육 방법	강의	122( 41.5)
	토의	91( 31.0)
	역할극	40( 13.6)
	훈련 및 연습	18( 6.1)
	사례발표	21( 7.1)
	레크레이션	2( 0.7)
	소계	294(100.0)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교육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순위가 '강의' (41%)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이 '토의'가 31%로 높았다. 2순위로 답한 것 중에는 '사례발표'가 42.8%로 높게 나타나, 강의와 토의, 사례발표 등의 교육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요구도 내용을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반영하여 실제 내용은 4세션이나 교육받는 횟수는 2회로 매주 토요일 오후에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구체적인 교육방법은 강의와 활동을 통해 토의와 사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III.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선행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과 미혼·기혼자들에 대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개발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는 session1. 결혼의 의미와 기대, session2. 부부간의 의사소통, session 3. 사랑과 성, session 4. 생활설계의 4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세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session 1. 결혼의 의미와 기대

목 적		결혼의 의미를 이해한다. 상대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수정한다. 평등한 결혼생활 설계한다.	
도입	20분	프로그램 서약서 각 커플소개... (별칭짓기, 의미소개) 사랑의 서약 노래부르기	
강의 및 활동	15분	활동1) 자신 및 배우자에 관한 탐구(퀴즈풀기) 자신과 배우자의 관계망, 장단점 알기, 반응행동과악하기	
	20분	활동2) 자신이 결혼하는 이유와 배우자를 선택한 이유 결혼의 동기와 배우자 선택의 근거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의 수정	
	10분	강의 -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변화	
	15분	활동3) 원하는 결혼을 생각하고 이를 위해 해야 할 일 결혼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기	
마무리	15분	평등부부선언문 소개 - 평등한 부부의 의미 소개	
마무리		10분	청혼하기
준비물		이름표, 네임펜, 카세트 플레이어, 음악테이프	

<표 5> session 2. 부부간의 의사소통

목 표		상대방과 자신을 모두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서로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의사소통의 기술을 습득한다.
도입	15분	자신의 대화방식에 대한 점검-대화진단표
강의 및 활동	15분	강의1) 대화의 본질과 의의(의사소통이란) 대화의 영향력 대화태도와 대화기술 자기를 표현하기(말하기 기술)



session 2. <계 속>

강의 및 활동	25분	활동1) 자기표현의 연습 1) 상대방에게 자신의 고마움을 표현하기 2) 상대방에게 섭섭했던 일 표현하기 3) 소감을 나누기
	15분	강의2) 상대방의 말을 듣기(듣기 기술-경청) 1) 주의를 기울이기 2) 상대방의 경험 인정하기 3) 정보요청하기 4) 요약하기 5) 개방적 질문하기
	25분	활동2) 듣기 연습 한명이 최근 경험한 스트레스적인 사건에 대한 자기표현하기 기술을 사용하여 이야기하면 다른 한명이 잘 듣는 기술을 사용하여 들어주고 느낌 나누기
마무리	15분	전체적인 느낀바를 나누고, 앞으로 대화기술을 사용할 것을 다짐(과제)
준비물		강의자료, 대화진단표(자기점검)

<표 6> session3 사랑과 성

목 적		1. 커플간 사랑의 실체를 파악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 2. 결혼에 대해 가지는 서로의 기대를 알고 비현실적 기대를 변화시킨다. 3.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한다.
도입	5분	도입 및 촉진활동 커플애칭 불러보기, 지난 주 수업후의 변화 이야기하기
강의 및 활동	15분	활동1) 우리커플의 사랑은 ? 스텐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용 자신의 사랑의 삼각형을 그린후 상대방과 비교
	15분	강의1) 바람직한 성역할과 성차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에 대한 이해 남성과 여성간 성차 이해
	10분	강의2) 내가 기대하는 결혼
	15분	활동2) 결혼에 대한 기대 결혼에 대한 기대(희망사항) 5가지를 적고 의견을 나눈다. 서로에 대한 기대 비교 : 서로에 대한 기대를 통해 상대방이 바라는 나의 모습을 알아본다.
강의 및 활동	50분	<특강 : 성교육> 1. 몸에 대한 이해 1) 성기관의 발생과 분화 2) 성기관의 발달 3) 남자의 몸 4) 여자의 몸 2. 성관계 1) 성관계의 의미 2) 성적매력과 성욕의 차이 3) 성반응의 단계와 남녀 차이 4) 성생활통계 3. 임신과 피임 1) 생리주기 2) 임신의 과정 3) 피임의 방법 4. 마무리 1) 남성의 성고민 2) 여성의 성고민 3) 상담사례소개 및 질문
마무리	5분	사랑과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이를 이해하는 것으로 마무리
준비물		성교육 자료, 활동지, 평가도구, 색연필, 도화지

2기 교육에서 수정된 부분

session 3. 올바른 우리의 성

목 적		1. 올바른 성지식을 전달한다. 2. 올바른 성지식의 학습을 통하여 커플간 성적 적응을 돕는다. 3. 바람직한 가족계획을 세울 수 있다.
도입	5분	건강한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활동 및 강의	50분	<특강 : 성교육> 1. 몸에 대한 이해 1) 성기관의 발생과 분화                      2) 성기관의 발달 3) 남자의 몸                                      4) 여자의 몸 2. 성관계 1) 성관계의 의미                              2) 성적매력과 성욕의 차이 3) 성반응의 단계와 남녀 차이              4) 성생활통제 3. 임신과 피임 1) 생리주기      2) 임신의 과정              3) 피임의 방법 4. 마무리 1) 남성의 성고민    2) 여성의 성고민    3) 상담사례소개 및 질문
	15분	강의1) 성생활의 준비 : 첫날밤 준비, 신혼기 성문제, 가족계획의 필요성, 결혼 전 검사해야 할 여성질환, 자녀계획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임신진단, 임신중절 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
	10분	활동1) 커플의 자녀계획을 세워본다
	10분	활동2) 분만예정일을 계산해본다 좋은 피임법의 기준, 피임방법에 대해 설명
	15분	활동3) 배란일과 임신가능기간을 계산해 본다. 성에 대해 대화하는 소개. 성생활을 해치는 것과 돕는 것들에 대한 강의.
마무리	5분	본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이나 느낀 점을 나눈다.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나 기관을 소개한다.
준비물		성교육자료, 검사도구, 활동지

<표 7> session4 생활설계

목 표		1. 결혼이 생활임을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도록 한다. 2. 결혼이후 생활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3. 부부의 생활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4. 결혼후 부부간 가사노동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5. 결혼후 경제생활을 장기적, 단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도입	5분	생활설계의 의미와 결혼후 실생활에 대한 가벼운 에피소드 소개
강의 및 활동	10분	강의1) 생활설계의 기초 1) 생활설계의 개념과 의의 2) 생활설계의 과정 3) 가족생활주기와 생활설계
	10분	활동1) 1. 긴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한 시간메트릭스 분석해보기
	10분	강의2) 생활시간설계 1) 생활시간설계의 의의 2)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시간관리 프로세스 3) 가사노동의 의미와 분담

session4 <계 속>

강의 및 활동	15분	활동2) 중요가치와 역할에 근거하여 부부의 생활시간계획표 만들기
	10분	활동3)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표 작성하기
강의3) 가계재무설계	15분	1) 가계재무설계의 필요성
		2) 가계재무설계의 과정
		3) 장기적 가계재무설계와 단기적 가계재무설계
	15분	활동4) 가족생활주기에 걸친 가계재무목표설정 및 자원조달대책 계획하기
	10분	활동5) 가계의 매달 소득과 지출 예상 및 부부간 가계재무역할분담표 작성하기
마무리	20분	프로그램 정리 및 평가
준비물		이름표, 활동지, 평가지 등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수료증 수여식

이상의 개발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인터넷의 결혼준비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한 후 서울시 대방동에 소재한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실시하였다. 2002년 8월 31일과 9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 휴식 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1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는 1, 2세션의 경우 9쌍 18명이 참석하였으며 3, 4세션에는 이중 6쌍이 계속해서 참석하였다. 1기 교육의 경우 3세션이 '사랑과 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성교육 부분은 비뇨기과 교수의 특강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기 교육에서는 1기 교육 후 평가된 내용을 바탕으로 '성' 부분에 초점을 두고 성교육 특강을 먼저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 실생활에서의 성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2기 프로그램은 2002년 10월 5일과 12일 토요일에 1기와 같은 시간대에 실시하였다. 2기의 1, 2세션 참석자는 8쌍 16명이며 3, 4세션 참석자는 6쌍 12명이다. 이중 계속 참석자는 5쌍 10명이었다.

IV.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프로그램의 평가는 전 4세션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간단한 설문조사와 더불어 참석자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계획된 평가문항은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와 수준, 타인에게의 권유여부, 프로그램 시간 적합성, 주관적 총평 등이다. 이외에 특히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세션과 부족하다고 지각되는 세션

을 지적하도록 하여 다음 프로그램 구성에서 참고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태도 변화 항목은 짧은 교육 실시로 인해 태도변화를 측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프로그램의 평가는 전 세션에 참석한 1기 12명, 2기 10명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22명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8).

연령은 남자 평균 29.5세이며 여성은 평균 26.8세이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남녀 모두 1쌍을 제외하고는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여 대체로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이 본 교육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평균 소득수준은 남성 177만원 여성 134만원 정도이다. 직업을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결혼예상 시기는 과반수가 약간 넘는 6쌍이 6개월 이내라고 답하였으며 1년 이내에 결혼할 계획이라는 비율이 77.2%였다. 이들 커플의 교제기간은 평균 27개월 정도로 대체로 교제기간이 긴 커플이 교육에 참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22명의 프로그램 참석자들이 프로그램을 평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먼저,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질문하였을 때 평균 81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경우 '매우 만족한다'가 4명(18.2%), '만족하는 편이다'가 16명(72.7%), '그저 그렇다'가 2명(9.1%)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겠다는 질문에는 평가자 22명 전원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표 8〉 프로그램 참석자의 일반적인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남자	여자
연령	20-24세	0	2( 18.2)
	25-29세	7( 63.6)	8( 72.7)
	30-34세	4( 33.3)	1( 9.1)
	소계	11(100.0)	11(100.0)
		평균 29.5	평균 26.8
교육 수준	고등학교졸	1( 9.1)	1( 9.1)
	대학교졸	7( 63.6)	7( 63.6)
	대학원졸	3( 27.3)	3( 27.3)
	소계	11(100.0)	11(100.0)
소득	100만원 이하	2( 18.2)	2( 18.2)
	101-150만원 이하	3( 27.3)	4( 36.4)
	151-200만원이하	4( 36.4)	1( 9.1)
	201만원이상	2( 18.2)	1( 9.1)
	무응답	1( 8.3)	3( 27.3)
	소계	11(100.0)	11(100.0)
	평균 177.1만원	평균 133.5만원	
직업		회사원(3) 학생(2) 수의사(1) 연구원(1) 교사(1) 그래픽 디자이너(1) 공무원(1) 학원강사(1)	회사원(5) 학생(3) 교사(1) 학습지 교사(1) 학원강사(1)
결혼 예상 시기	6개월이내	12( 54.5)	
	1년이내	5( 22.7)	
	1년-2년	3( 13.6)	
	구체적인 계획 없다	2( 9.1)	
	소계	22(100.0)	
교제 기간	6개월 이하	2(9.1)	
	6개월-1년	0	
	1년-2년	10(45.5)	
	2년 이상	10(45.5)	
	소계	22(100.0)	
	평균 27개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시간이 적당하였는가를 질문에는 17명(77.3%)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적당하지 않다는 응답도 5명(22.7%)인데 이들 중 1명은 시간이

〈표 9〉 프로그램의 평가

평가항목	구분	빈도(%)
만족도점수	60-69점	2( 9.0)
	70-79점	7( 31.8)
	80-89점	8( 25.8)
	90-99점	5( 22.7)
	소계	22(100.0)
만족도수준	매우 만족하는 편이다	4( 18.2)
	만족하는 편이다	16( 72.7)
	그저그렇다	2( 9.1)
	불만족하는 편이다	0
	매우 불만족스럽다	0
	소계	22(100.0)
프로그램 타인 권유여부	권유	22(100.0)
	권유하지 않음	0
프로그램 시간 적합성	소계	22(100.0)
	적당	17( 77.3)
	부적당	5( 22.7)
	소계	22(100.0)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였고, 1명은 평일 저녁을 제안 하였으며, 나머지 3명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참석자들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지적한 세션은 중복응답 포함하여 총 응답건수 31건 중 2세션의 갈등해결과 의사소통이 13건(41.9%), 4세션의 생활설계부분이 11건(35.5%)으로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참석자들의 이러한 평가는 가족과 관리의 통합적 관점에서 실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2세션의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영역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Scott, Howard, Lydia와 Olmos-Gallo의 연구(2001)에서 의사소통 기술이 결혼전 교육에서 가장 유용한 구성요인이라고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4세션의 생활설계분야도 2세션 못지 않게 높은 호응도를 보였는데, 생활설계교육은 기존의 결혼준비교육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으로 가족과 관리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한 본 프

로그래의 차별성을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본 프로그램은 평등가족을 지향하는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기본전제 하에서, 관념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실제 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기술적 능력배양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시간관리나 재정관리와 같은 생활설계 영역을 본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것이었다. 이와 같은 본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지향과 의도는 프로그램 참석자들의 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관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 가진 주관적인 평가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언급하는 내용을 통해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막연한 결혼이 실제적으로 느껴진다.'*

*'지금까지는 결혼식, 신혼여행까지만 생각했는데, 그 이후 구체적인 생활에까지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다.'*

*'결혼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데 너무 급하게 준비하는게 아닌가하는 스트레스가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나서 막연한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사고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구체적이지 못했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도장찍은 느낌이 든다.'*

*'결혼이 구체적으로 와 닿는다. 피상적 생각들이 바뀌어 마음의 준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쉽게 얘기하기 어려웠던 부분(금전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던 부분을 세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예비부부들은 한결같이 본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한 이후 결혼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있어 결혼생활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들의 결혼준비는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것에만 집중된다. 이는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으로 결혼을 낭만적이고 피상적

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혼식과 신혼여행은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치러지는 하나의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결혼이 생활이고, 또 생활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 할 때,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부부가 원만하게 생활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생활공동체로서 향후 부부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프로그램은 실제 생활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을 실질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는 참석자의 평가를 통해 충분히 인정되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생활설계 부분에서 금전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웠는데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는 예비부부들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결혼 전에 이런 주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문제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준다. 본 프로그램에서 생활설계교육을 통해 장기적인 생애설계와 단기적인 재정계획 등을 시도함으로써 이들의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 의사소통기법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보다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본 프로그램의 효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가족과 관리의 통합적 접근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보다 성공적인 결혼준비교육이 되었음을 반영해준다.

지금까지의 총평을 종합해볼 때, 가족과 관리의 통합적 관점에서 실제 생활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결혼생활의 준비를 도우려는 본 프로그램의 본연의 목표가 매우 효과적으로 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V. 요약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예비부부들에게 관계적인 측면

과 더불어 물적 자원관리를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예비부부들에게 시행함으로써 실제적인 결혼 후 생활의 준비를 도우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의 선행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전반적인 영역을 선정된 후, 미혼 299명, 기혼 176쌍에게 실시한 요구도 조사분석을 통하여 분석을 통하여 이를 보완, 결혼의 의미와 기대, 부부간의 의사소통, 사랑과 성, 생활설계의 4영역에 이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을 2002년 8월부터 10월에 이르기까지 2기에 걸쳐 총 18쌍의 예비부부들에게 시행하였으며 이중 전 과정을 수료한 11쌍으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평가는 참석자들의 만족도나 타인에게의 권유여부 등을 고려할 때 만족할만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났으며 참석자들의 주관적인 평가 역시 실제적인 부분에서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및 관리의 통합적인 접근방식에 근거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적합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에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지금까지 개발된 국내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본 결혼준비 프로그램은 실제적인 영역에 초점을 두고 가족생활의 인적 영역과 물적 영역을 가족과 관리의 관점에서 통합하여 보았다. 즉, 부부관계에 조화롭게 적응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적 측면과 부부의 시간과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적 측면을 하나의 프로그램에 통합한 것이다. 이러한 본 프로그램의 효과는 앞서 프로그램 참석자들의 만족도나 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인정된 바, 향후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은 본 프로그램과 같이 실제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도 각 영역의 전공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반적인 프로그램 시행과 평가에서 얻어진 제한점을 토대로 추후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고려해야 할 점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로

집약된다. 본 프로그램의 시행과정에서 참석자들이 연속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현실적 제약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기대수준의 차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참석자들은 2주의 기간이 현실적으로 참석가능한 기간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실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의사소통이나 생활설계부분에서 더 많은 시간할애를 원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지속될 경우 현실적으로 연속적인 참석이 가능하겠는가의 문제를 고려할 때, 갈등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참석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장기화할 경우 현실적인 결혼준비 시간압박을 받는 대상들의 참석률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딜레마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특정 영역을 특화시킨 후속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의사소통부분을 강조하거나 혹은 생활설계 부분을 강조하여 이를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후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다.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을 다시 선택적으로 더 심도 있게 접하게 함으로써 일반적인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특화된 영역의 프로그램이 공존할 수 있도록 기획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요구도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 중 프로그램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인척관계 부분이다. 시가 및 처가와와 관계나 균형이 중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장기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역시 일반적인 프로그램 참석 후 선택적인 강좌로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처럼 자발적 과정을 통해 모집된 참석자의 경우, 매우 높은 교육수준과 상당히 긴 교제기간을 지니고 있었으며 부부취업가족을 대비하는 프로그램의 계획대로 두 사람이 독립적인 소득을 지니고 있었다. 본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참석자들의 높은 열의와 더불어 높은 교육수준으로 인한 동질적인 성향이 프로그램 진행을 원활히 하는 환경을 조성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회 전반적

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프로그램 시행자에게 참석자 수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맡길 수 있으나, 이 경우 프로그램 시행자의 개인적 요인에 의존함으로써 동일 프로그램 시행으로 동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시행안이 개발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반적인 하나의 프로그램 주제 안에 특화된 영역에 따라 후속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과 더불어 참석자의 교육수준이나 직업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는 시행을 배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비용의 부담문제를 들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의 경우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참석자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수혜자로부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실질적인 수요층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순수한 필요성에 의해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려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결혼유대의 약화가 지나는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할 때,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은 개인이 아닌 사회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혼유대의 약화와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개별 부부보다는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 프로그램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나 종교단체 등과 함께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 참고문헌

- 가족관계학회편(1998). 가족생활교육: 이론 및 프로그램.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김득성, 박미경(1997).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35(4), 47-77.
- 김혜석(1990). 결혼준비 성인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정(1997). 예비부부를 위한 관계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희성, 김혜선(2001). 델파이 조사를 이용한 결혼준비진단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7), 125-143.
- 오윤자(2001). 교육학적 관점을 기초로 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09-135.
- 정민자(1996).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1. *대한가정학회지*, 34(4), 373-391.
- 조정문(1997). 정보사회에서의 가족 및 세대공동체. *사회조사연구*, 12(1), 46-71.
- 최혜경, 노치영, 박의순(1994). 결혼초기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프로그램의 구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71-180.
- 홍달아기, 신현실(2001). 교과과정으로서의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W 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 *한국가정과학회지*, 14(2), 29-47.
- 통계청홈페이지 2003.1.28.  
[http://www.nso.go.kr/cgi-bin/sws\\_777pop.cgi?A\\_REPORT\\_ID=MA&A\\_CONTENTS=0212&A\\_LANG=1](http://www.nso.go.kr/cgi-bin/sws_777pop.cgi?A_REPORT_ID=MA&A_CONTENTS=0212&A_LANG=1)
- Stanley S. M., Markman H. J, Prado L. M., & Olmos-Gallo P.A. (2001). Community-based premarital prevention: Clergy and lay leaders on the front lines. *Family Relations*, 50, 67-76.
- Stanley S.M. (2001). Making a case for premarital education. *Family Relations*, 30(3), 272-280.

(2003년 1월 29일 접수, 2003년 5월 12일 채택)